

Deloitte.



순환경제 도입, 기후위기의 현실적 대안

양원석 Senior Consultant | Deloitte Insights

2023년 04월
Deloitte Insights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01	기후변화의 실효적 대응방안, 순환경제	03
02	순환경제 성장 잠재력	04
03	기업의 순환경제 도입, 기업 성장동력 확보와 가치상승 효과	05
04	순환경제는 미래 전략의 한 축	07
Appendix	딜로이트 ESG 센터 소개 및 역량	08
	딜로이트의 ESG 분야 글로벌 리더십	10



01

기후변화의 실효적 대응방안, 순환경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3월 20일 기후변화 제6차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며 “향후 10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년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던졌다.¹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대기 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려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기후 변화에 지금보다 더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터전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현재 규모의 환경 파괴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2조 7000억 달러(약 3,000조 원)의 경제 손실을 입을 것이라 추정했다.² 딜로이트는 2022년 발표한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방지하면 세계경제는 2070년까지 50년 동안 178조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인 반면 협력하며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할 경우 43조 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기후 변화의 심화를 막는 대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Step 01 전 지구적으로 소비 수요를 줄이는 방법



Step 02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



Step 03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는 노력

이 중 가장 효과적인 안은 세 번째 안인 생산투입 자원의 절감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비 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발이 클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성장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 또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CUS 기술은 급격히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없다. 이산화탄소가 온전히 지층에 저장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건 27%에 불과하고, 나머지 73%는 탄소배출로 이어질 화석연료의 생산을 위해 원유회수증진(EOR) 공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현재와 같은 CCUS 프로젝트는 탄소배출량 감소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세 번째 방안 즉,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고 즉각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 또한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도입해 기후변화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순환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원재료 리사이클링 비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도 낮은 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육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⁴

순환경제 도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수립한 정책과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동시에 기업의 평판,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순환경제 관련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환경제를 주목해야 한다.

02

순환경제 성장 잠재력



순환경제의 도입과 확산은 인류의 터전인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필수적이다. 동시에 기업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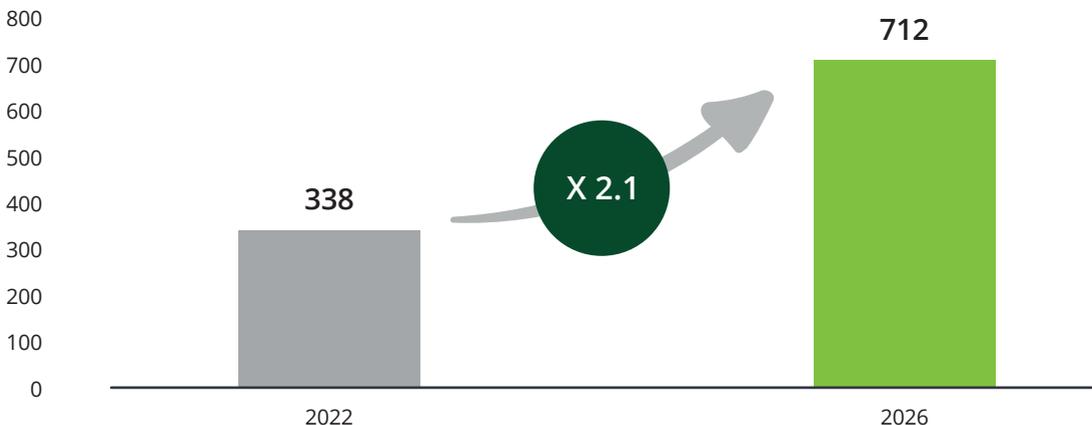
아쉽게도, 순환경제는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딜로이트와 네덜란드 비영리연구단체 서클이코노미(Circle Economy)가 공동으로 발간한 The Circularity Gap Report 2023에 따르면 2023년의 순환성 지수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는 매년 지구에서 추출되어 사용되는 천연자원 1,000억 톤 중 7.2%만이 지구의 경제활동에 재활용된다는 의미이다. 이 순환성 지수는 최근 5년간 9.1%(2018년)에서 7.2%(2023년)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인류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선 순환성 지수를 17%까지 높여야 한다. 순환성 지수가 올라가기는 커녕 최근까지 하락한 것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순환경제가 널리 확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하면, 순환경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 관련 이슈는, 장기적(10년 이상)인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⁶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순환경제 역시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순환경제 시장은 2022년 약 3,380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 약 7,12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참조). 불과 4년 만에 시장 규모가 2.1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당한 성장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환시장의 성장세는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EU와 미국은 물론이고,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순환경제의 중요성, 시급성을 인지하고 실질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인 순환이용을 도모할 것이라 밝혔다. 사용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자원 고갈을 막고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⁷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친환경 패러다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영위하는 사업을 순환경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1. 순환경제 관련 글로벌 거래 금액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출처: Statista

03

기업의 순환경제 도입, 기업 성장동력 확보와 가치상승 효과

(1) 원재료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

순환경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을 통한 재무적 성과 창출이다. 제품이 수명을 다해 폐제품이 되고 나면 이를 회수, 분해하여 동일한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이다.⁸ 대표적 사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도입해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에 기여한다. 폐배터리에 잔존하는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리튬 등의 희귀금속들을 추출하여 이를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순환경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유럽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주 원료 재활용이 이미 활성화된 상황이다 (그림 2 참조).⁹

원재료 재활용 및 비용 절감은 특히 원재료 수입의 비중이 높은 주요 한국기업들에게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류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잠재적 비용 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약 3년간의 팬데믹을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피해에 직면했다. 미-중 패권경쟁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뉴 노멀’화 될 수 있다는 점을¹⁰ 고려했을 때 글로벌 공급망은 언젠가 붕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순환경제를 통한 원재료 재활용, 재사용은 기업들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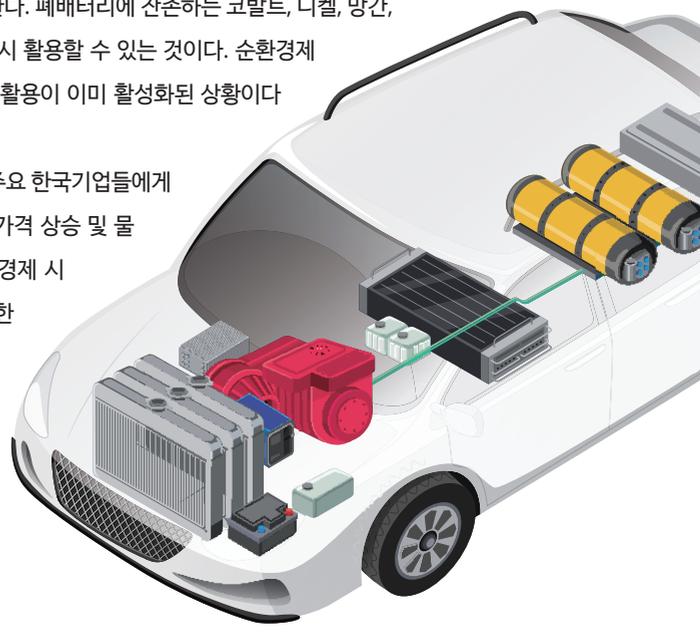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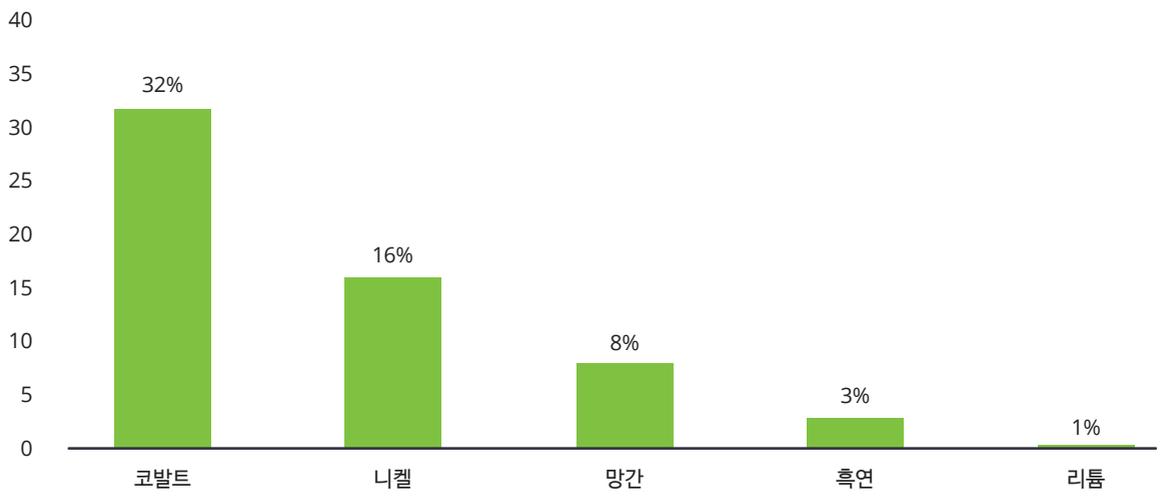


그림 2.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주요 원료 재활용율(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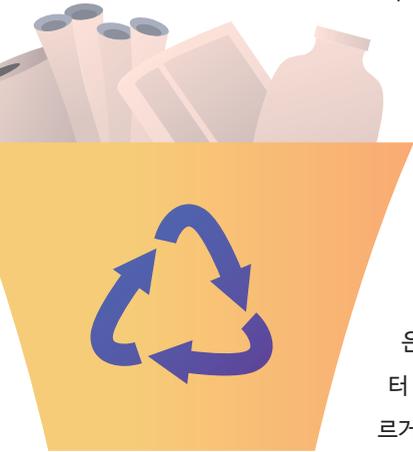
출처: Deloitte

(2) 제품/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순환경제 도입 및 사업다각화로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케이스도 있다. '푸드 업사이클링'이 대표적이다. 최근 식품 제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식품 혹은 식품 원료를 재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¹¹ 오비맥주는 맥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주박(부산물)을 살균·건조한 뒤 분쇄해 만든 가루를 활용해 에너지바, 웨이크 등의 식품을 생산한다.

부산물로 만들어져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과는 다르게 영양소도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품 기업들은 베이커리와 밀키트 등으로 제품을 다각화해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도 있다.¹²

플라스틱 분야에서 CJ제일제당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HDC현대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란, 폐기된 후 미생물과 결합되어 단기간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기존 합성수지 기반 플라스틱에 비하면 자원 순환 체계에 훨씬 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소재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25년에 약 1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CJ제일제당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5,000톤 이상의 선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¹³ 이처럼 기업들은 핵심 사업 분야와는 전혀 다르거나 일부 연계된 순환경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 해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3) '순환고객경험' 제공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기업들의 친환경적 활동은, 단순히 기업/브랜드의 이미지와 평판을 제고하는 차원을 넘어 고객들에게 '순환고객경험'(circular CX)를 제공하고 있다.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순환 고객경험 용어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이 접목되어 만들어진 개념이다.¹⁴ 글로벌 가구기업 IKEA는 고객들이 사용하던 중고 가구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바이백(buy back)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객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중고 가구의 상태에 따라 제품원가의 30%~50%에 달하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IKEA가 구축한 '자원순환 허브'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바이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수거된 중고 가구들은 분해, 재조립, 재가공되어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되거나 수리작업을 거쳐 기부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친환경적 행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자신이 사용하던 가구가 재활용, 재사용되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만족감과 자긍심을 심어준다.

매슬로우(Maslow, A. H.)의 5단계 욕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가장 원초적인 1단계 생리적 욕구부터 가장 고차원적인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위계를 가진다고 한다(2단계: 안전/안정감의 욕구, 3단계:소속감/사랑의 욕구, 4단계: 존중/존경/인정 욕구).¹⁵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가구를 구매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5단계 욕구 중 1,2단계 차원의 욕구이다. 앞서 언급한 IKEA의 순환고객경험은 고객들에게 4단계 혹은 5단계 차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었던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글로벌 기업들은 IKEA 사례와 같은 순환고객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영속가능성,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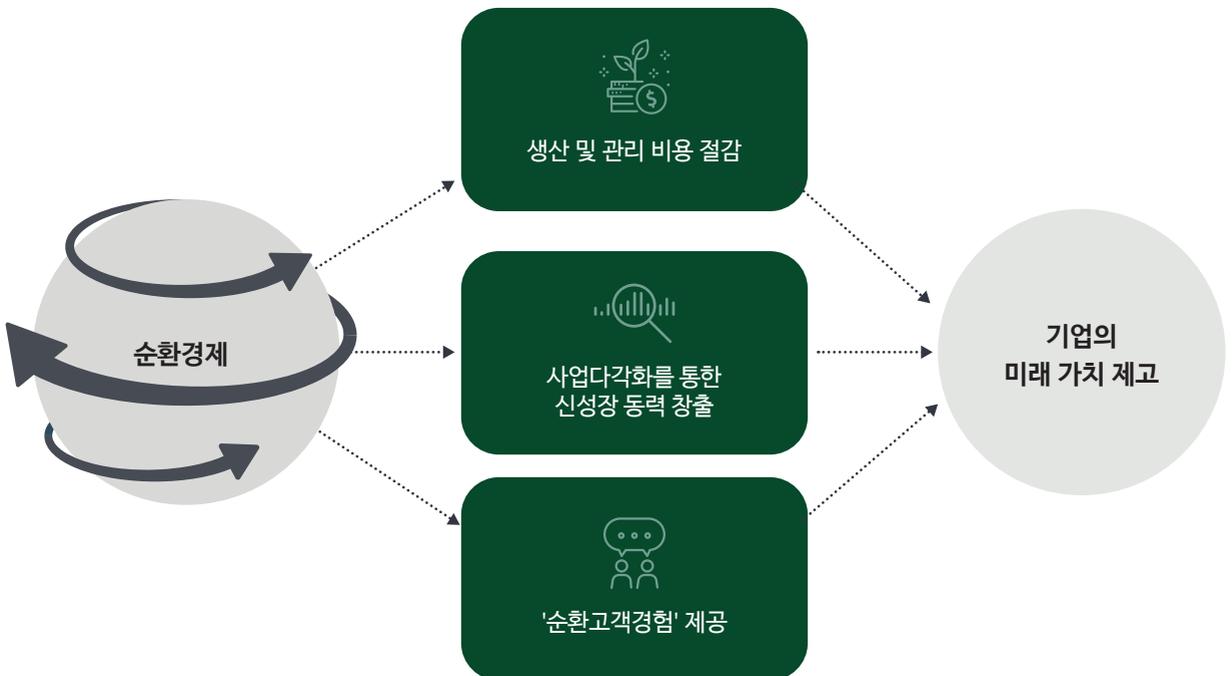
04

순환경제는 미래 전략의 한 축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이른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ESG를 일시적 트렌드에 그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글로벌 리더들은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적 미래 관점에서 환경 이슈가 경제 주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¹⁶ 기업들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기부금, 캠페인 등)하는 것은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제는 자원의 채굴, 활용, 폐기, 재활용/재사용 전 단계에 걸친 순환경제 비즈니스 도입이 기업들의 미래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순환경제 비즈니스는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기업 가치 제고 수단이 될 수 있다(그림 3 참조).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 순환경제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외연 확장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그린 비즈니스를 탐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만, 특정 국가의 경제/정치/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과 성숙도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기업들은 각국의 경영 환경에 맞는 순환경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¹⁷ 또한 내부적으로 국내 협력 기업, 협회, 연구소, 대학교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순환경제 비즈니스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함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대한 반감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순환경제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¹⁸

그림 3. 기업들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도입의 이점



출처: 국내의 보고서 취합, 저자 재구성

딜로이트는 산업 분야별 순환 경제 도입 방안을 기회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이를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그림 4 참조).¹⁹ 먼저 식품 및 농업 분야에서는 로봇을 도입해 비료와 물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도시 농업과 스마트 팜은 식자재, 식료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현저히 줄인다. 다음으로 제조 및 유통 분야에서는 순환성이 더 높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 ‘공유/렌트’하는 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공급망 관련 ‘니어쇼어링’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는 모듈식 설계/시공 시스템을 고도화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건축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구역과 건축물 설계 시 장기적인 수명주기를 감안해야 한다. 모빌리티 및 수송 분야에서는 공유형 모빌리티 도입을 확대하고 운송 모듈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모빌리티의 양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모빌리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 산업 분야 별 순환경제 도입 방안

분야	순환 경제 도입 방안
 식품 및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와 물 사용 최적화를 위한 로봇 도입 활성화 • 도시 농업(스마트 팜 등)을 통한 유통/운송 과정 감축 • 식자재 정보 레이블링 및 투명화로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소비 참여 유도
 제조 및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성이 더 높은 비즈니스 모델 도입 •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 ‘공유/렌트’하는 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 공급망 관련 ‘니어쇼어링’ 확대
 건설 및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식 설계 시스템 고도화 • 도시 구역/건축물 설계 시 장기적 수명 주기 고려 • 재생 건축자재 활용 증대
 모빌리티 및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형 모빌리티 도입 확대 및 운송 모듈화 • 대중교통 허브 효율화

출처: Deloitte

이러한 ‘순환 혁신’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먼저 자사가 순환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수준이 현재 집행 중인 사업 전략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인지 분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사의 가치사슬을 다시 살펴보고 그 중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파트너와 함께 순환 혁신을 만들어 갈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환 경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야 한다.

Appendix

딜로이트 ESG 센터 소개 및 역량

전 산업 부문의 ESG 전문성 확보

에너지·자원·산업재, 소비재, 금융, 바이오·헬스케어, 첨단기술·미디어·통신, 정부·공공 등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리더십



ESG Center
백인규 센터장



ESG Center
니콜라 위어 파트너



Audit&Assurance
강상욱 파트너



Audit&Assurance
연경흠 수석위원



Audit&Assurance
이승영 수석위원



Audit&Assurance
임경훈 수석위원



Risk Advisory
박태호 파트너



Risk Advisory
이옥수 파트너



Consulting
최용호 파트너



Consulting
안상희 파트너



Consulting
김우성 파트너



Financial Advisory
이중우 파트너



Financial Advisory
조병왕 파트너



Financial Advisory
심의준 파트너



Tax&Legal
박준웅 파트너

ESG 프로젝트 수행 실적

S 전략 O 운영 F 금융 R 공시

에너지·자원·산업재

- ☑ 화학기업 내부탄소가격 로직 수립 S
- ☑ 화학기업 ESG 채권 인증 F
- ☑ 철도/산업재기업 ESG 보고서 자문 R
- ☑ 금속기업 ESG 경영 전략 및 보고서 자문 S R

소비재

- ☑ 자동차기업 RE100 및 탄소중립 전략 수립 S
- ☑ 식품기업 ESG 경영 전략 수립 R
- ☑ 자동차기업 ESG 보고서 자문 R
- ☑ 유통기업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공시 S R
- ☑ 물류기업 기후 전략 수립 및 공시 S R

정부·공공

- ☑ 국제기구 인증 검토 정책 자문 S
- ☑ 정부부처 기후변화사업 모델 수립 자문 S
- ☑ 금융협회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O
- ☑ 정부부처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 자문 F
- ☑ 정부기금 투자 가이드라인 수립 F

금융

- ☑ 자산운용사 ESG 경영 전략 자문 S
- ☑ 국책은행 ESG 및 탄소중립 전략 수립 S
- ☑ 국책은행/캐피탈사 ESG 채권 및 예금 인증 S
- ☑ 투자사/보험사 ESG 채권 인증 F
- ☑ 투자사 ESG Due Diligence F
- ☑ 은행 금융자산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F
- ☑ 생명보험사 ESG 보고서 자문 및 평가 대응 R
- ☑ 은행/증권사 ESG 보고서 자문 R

첨단기술·미디어·통신

- ☑ 게임기업 사회적 가치 전략 수립 S
- ☑ 반도체기업 탄소배출권 자격 자문 F
- ☑ 전자기업 ESG중대성평가 R
- ☑ 반도체기업 SASB자문 R
- ☑ 반도체기업 ESG 보고서 자문 R
- ☑ 케이블사 ESG경영 전략 및 보고서 자문 S R
- ☑ 반도체기업 탄소중립 전략 및 TCFD 보고서 자문 S R

바이오·헬스케어

- ☑ 제약사 ESG경영 전략 및 보고서 자문 S R

Appendix

딜로이트의 ESG분야 글로벌 리더십

ESG 글로벌 리더십

딜로이트는 단순히 ESG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주요 멤버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고, 자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통해 지구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선도적으로 기여합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딜로이트의 약속

▶▶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딜로이트 기후 행동 이니셔티브

☑ 탄소중립

2030년 단기 목표(SBTi 검증完): 2019년 대비 Scope 1, 2 배출량 70%, Scope 3 배출량(FTE당 출장) 50% 감축, 사무실 전력 100% 재생에너지화, 법인차량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로 전환 (※장기 목표는 SBTi Net-Zero Standard에 따라 수립 예정)

☑ 지속가능성의 내재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실행 계획을 조직 전체에 적용 (시니어 리더 지정, 전략·운영상의 주요 아젠다로 고려, 배출량 연례 공시 등)

☑ 개인 참여 역량 강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감 있는 기후 행동 독려

☑ 생태계 차원의 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 극대화 및 시너지 창출

주석

1. IPCC (2023), AR6 Synthesis Report: Climate Change 2023 Sixth Assessment Report
2. WWF (2022), 금융당국의 2050 탄소중립 및 자연회복력 복원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
3. IEEFA (2022), The Carbon Capture Crux: Lessons Learned
4. Deloitte (2021), 딜로이트 인사이트 19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5. Deloitte & Circle Economy (2023), The Circularity Gap Report 2023
6. WEF (2023), Global Risks Report 2023
7. 환경부 (2022.12.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회 통과
8. 임형우 (202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1-32
9. Deloitte (2022), Fueling the future of mobility
10. Deloitte (2023), 딜로이트 인사이트 25호: 퍼마크라이시스와 리질리언스 전략
11. Deloitte (2023), 딜로이트 인사이트 24호: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12. 한국경제TV (2022.12.01), 폐기 재료가 음식으로, 지구 살리는 업사이클링(이제는 순환경제)
13. 시사저널 e (2023.02.06), 플라스틱 다시 쓰고 분해하고, 순환경제 공들이는 기업들
14. Deloitte (2023.01.20), How brands can embrace sustainability and circular experiences to create compelling customer engagement journeys
15.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6. WEF (2022), Chief Economists Outlook
17. Deloitte & Circle Economy (2023), The Circularity Gap Report 2023
18. Deloitte (2023.01.29), The greenwashing risk to corporate sustainability
19. Deloitte & Circle Economy (2023), The Circularity Gap Report 2023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컨설팅
고객산업본부

손재호 Partner
고객산업본부 본부장
jaehoson@deloitte.com

정동섭 Partner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dongjeong@deloitte.com

김사힘 Director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sahekim@deloitte.com

HOT LINE
02) 6099-4651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